

# Newsletter

Oct 24, 2025

## Contents

### Audit

-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엄정 제재
-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 결과
- '26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 Accounting

-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제30차 공표 IFRS집행사례 안내
-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ESG 평가 및 공시 개선
- 금융업 상장사 XBRL 주석 제출 완료

### Tax

- 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국세청, 현장 상주 세무조사 최소화 등 혁신방안 발표
- 티몬 사태로 피해입은 판매자 대상 부가세 환급 예정

### Insight

- 공인회계사가 본 2025년 3,4분기 경기실사지수 (CPA BSI)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기업을 위한 시사점



##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엄정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2025.8.27 정례회의에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 논의하였습니다. 이 방안에는 회계부정이 고의이거나 장기간 지속된 경우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회계부정을 사실상 주도한 '실질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등이 신설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중대한 회계부정 엄정 제재하여 시장질서 확립

-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감법상 과징금 증액
- 회계부정 장기간 지속 시 과징금 가중(고의: 1년초과시 년당 30%가중, 중과실: 2년초과시 년당 20%가중)
- 회계부정 실질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개인과징금 실효성 강화

### ■ 회계감시 강화를 위한 제재방식 개선

- 외부감사 방해, 내부감사 방해, 심사·감리 방해 시 고의분식회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치
- 다수의 과실 위반사항 발생 시 중요도에 따라 감사인지정, 내부회계 외부감사조치 등 부과
- 내부감사기능을 실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회계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
-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한 경우 회사 과징금 감면(최대 면제)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알아보기 →](#)

##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 결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은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고개선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사업성 평가를 통해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은 차질 없이 추진 중이나,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더 알아보기 →](#)

## ‘26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금융감독원은 2026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 하였습니다. 지정회사가 직접 감사인 지정결과 및 분산지정에 따른 주기적 지정 이월 대상 여부 등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공문을 확인하고 감사인 재지정 사유 등 의견이 있는 경우 공문 수령일로부터 2주이내(or 본통지 1주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
-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독립성 훼손 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 요청

금감원은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25.11.12일 본통지 예정이며, 회사 및 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더 알아보기 →](#)

## Accounting

###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제30차 공표 IFRS집행사례 안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국제회계기준(IFRS)의 일관성 있는 집행을 위해 유럽집행기구조정회의(EEC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 작성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ESMA가 공개한 IFRS 집행사례 요약 자료를 홈페이지 게시하고,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유해 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 알아보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ESG 평가 및 공시 개선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결의하였으며,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규정개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ESG 평가기관 협의체에서는 중대재해 등 중대이슈 발생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재해 발생시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 개정·시행
-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발생 등 관련 한국거래소 수시공시를 신설하고, 정기공시(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강화 추진

[더 알아보기 →](#)

## 금융업 상장사 XBRL 주석 제출 완료

금년도 첫 시행인 금융업 상장사 XBRL\* 주석 제출이 완료되어 실시간 영문 주석 제공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 기업 재무정보의 생성·보고·분석 등이 용이하도록 구조화된 데이터로 수집·유통하기 위한·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

비금융업 상장사의 경우 '23년도 사업보고서('24.3월)부터 재무제표 주석을 XBRL로 제출하였고 금년에는 자산 5천억 이상 2조원 미만의 상장사까지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XBRL 주석공시 제출 대상 상장사가 증가\*함에 따라 동 상장사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26.3월: 비금융업 550개사 증가, '26.8월: 금융업 10개사 증가 예정

[더 알아보기 →](#)

## Tax

## 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정부는 25. 7. 31.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25. 8. 26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그 중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되었으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3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8.28일 국회에 제출되었고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더 알아보기\(2025년 개편안\) →](#)

[더 알아보기\(일부 수정안\) →](#)

##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행정안전부는 25. 8. 28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은 입법예고 후 10월에 국회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경제 안정, 납세자 친화적 환경조세 및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지원,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 국세청, 현장 상주 세무조사 최소화 등 혁신방안 발표

국세청은 세무조사 혁신의 첫 걸음으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새로운 표준(New Normal)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업무공간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실시하는 사무실 조사 위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
- 납세자가 조사관서로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오로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자료의 보안은 최고 수준으로 유지

[더 알아보기 →](#)

## 티몬 사태로 피해입은 판매자 대상 부가세 환급 예정

국세청은 (주)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25.6.23)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주)티몬 입점 판매자에게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 신청한 판매자는 환급액 등을 지급하고, 아직까지 대손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는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더 알아보기 →](#)

## 공인회계사가 본 2025년 3,4분기 경기실사지수 (CPA BSI(Business Survey Index))

회계정책연구원은 공인회계사 대상 설문을 기반으로 한 2025년 3분기 CPA 경기실사지수(CPA BSI)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3분기 BSI(현황): 93 (전분기 대비 26p 상승, 경기개선 시사)
- 4분기 BSI(전망): 94 (3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기대)
- 경기 개선의 주요 원인
  - 소비회복, 주식시장 회복,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 등
- 산업별 현황 BSI
  - 제약·바이오(114), 정보통신(113), 전자(110) 등 다양한 산업이 기준치(100) 초과
- 향후 경제에 영향을 줄 변수
  - 글로벌 경기 흐름, 정부의 정책 변화, 통화정책 방향 및 자금 조달 환경 변화, 원자재 가격 및 인플레이션,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등 노동정책 이슈

[더 알아보기 →](#)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예시 및 국내기업들을 위한 시사점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표 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각국이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기업들의 체계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내 기업들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IFRS S1 사회·지배구조 관련 재무정보 공시 예시와 IFRS S2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예시 관련 포럼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자료를 공유하였습니다.

- IFRS S1 기반 사회(공정임금 등)·지배구조(공급업체 결제 관행 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예시 포함
- IFRS S2 기반 기후 관련 위험/기회관리 전략, 거버넌스, 위험관리 프로세스 등 공시 예시 포함

[더 알아보기 →](#)

## Contact us

### Grant Thornton 대주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3 (대치동, 동하빌딩 2층)

**Tel** 02.569.0181 | **Fax** 02.569.0367

**Email** [rfp@kr.gt.com](mailto:rfp@kr.gt.com)

Grant Thornton 대주회계법인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시에는 Grant Thornton 대주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에게 연락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5 Grant Thornton Daejoo. All rights reserved. "Grant Thornton" refers to the brand under which the Grant Thornton member firms provide assurance, tax and advisory services to their clients and/or refers to one or more member firms, as the context requires. Grant Thornton Daejoo is a member firm of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TIL). GTIL and the member firms are not a worldwide partnership. GTIL and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Services are delivered by the member firms. GTI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GTIL and its member firms are not agents of, and do not obligate, one another and are not liable for one another's acts or omissions.